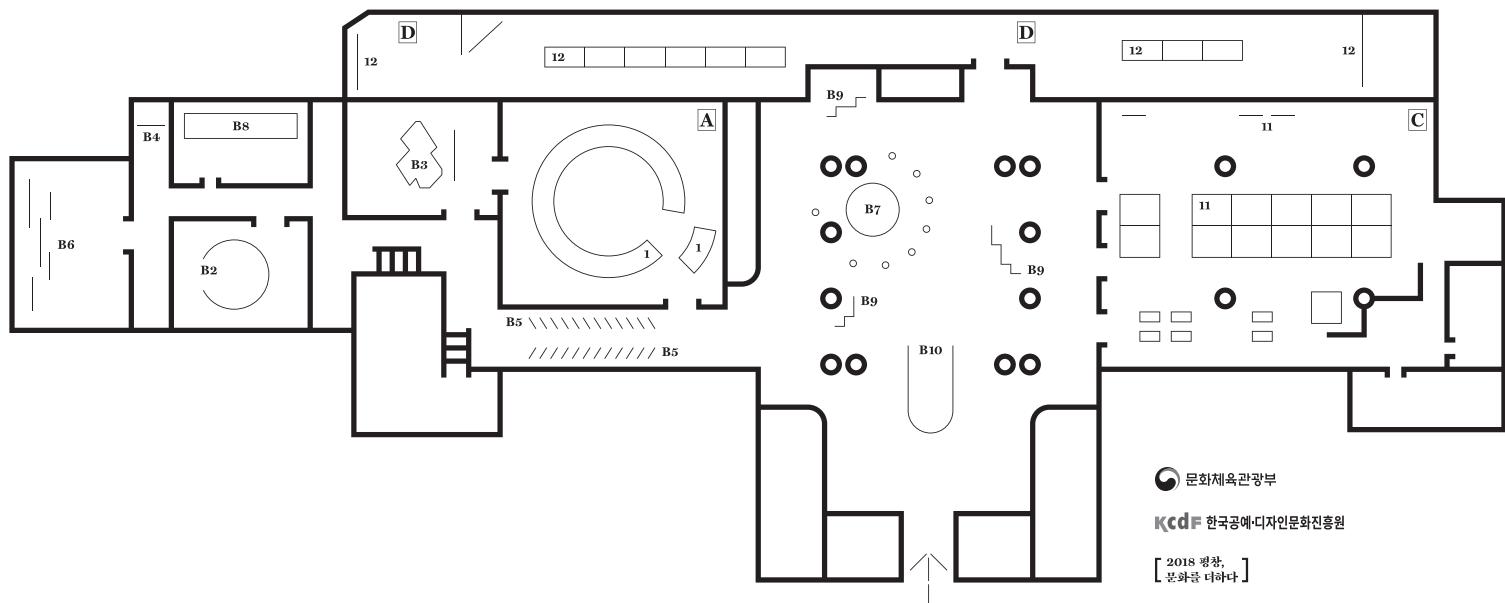


A ① 동계올림픽과 지역 문화—로컬앤드 / **B** 강원 9경(전시 큐레이션: 눈디자인)—**B2** 131WATT, **B3** 소소문구, **B4** 양민영,
B5 오늘의 풍경, **B6** 오디너리피플, **B7** 워크스, **B8** 이정혜, **B9** 코우너스, **B10** 페이퍼프레스 / **C** ⑪ 설거지 차 3—송전동 / **D** ⑫ 읽고 먹고
 연결하다(전시 큐레이션: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 ←→ 평창의 봄

2017. 4.25, 화요일 — 5.9, 화요일,
 10:00 ~ 19:00 (전시 기간 중 휴관 없음,
 전시 종료 30분 전 입장 마감)

문화역서울 284 1층
 (www.seoul284.org)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디자인문화진흥팀
 (www.kcdf.kr / 02-398-7966)

개막식
 2017. 4. 25, 화요일, 17:00
 장소: 문화역서울 284 1층 중앙홀

디자인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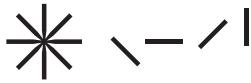
2017. 4. 26, 수요일 — 4. 28, 금요일

15:00 ~ 17:30

장소: 문화역서울 284 RTO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www.kcdf.kr)

평창의 봄



〈평창의 봄〉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태백산맥과 맑은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강원도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 기획되었다.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공공성을 담아내는 디자인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가치를 발현하며 삶을 풍요롭게 한다.

공공디자인은 일상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매일 아침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와 같다.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 관계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공공디자인은 공동체의 삶, 더 넓게는 공유의 가치를 디자인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강원도 평창을 배경으로 공공성과 일상성을 담은 디자인은 지역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이야기를 생산해 낸다. 올림픽 개최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들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선 공공디자인을 통해 그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며, 아울러 공공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보는 것이 이 전시의 취지이다.

〈평창의 봄〉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시작되는 겨울과 올림픽 이후 봄을 맞은 평창의 모습을 상상한다. 올림픽의 시작과 함께 작동될 많은 행사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의 유산으로 남아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개최지의 삶에 기반을 두고 창출될 다양한 가치와 디자인의 방향을 그려 보고, 공공성과 디자인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 A 동계올림픽과 지역 문화

세계인의 축제라 일컬어지는 올림픽이 열리면 그 개최지의 경제와 문화, 역사가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알려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다양한 공공디자인 정보를 친근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기존 개최국들이 자국의 고유성을 어떻게 건강한 지역 문화로 연계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2018 평창동계 올림픽과 평창의 지역 문화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동계올림픽의 역사 전반을 살펴보는 ‘연대기(Chronicle)’, 포스터와 앰블럼, 모토에 담긴 ‘아이덴티티(Identity)’, 개막식과 폐막식, 경기장, 선수촌 등에서 느낀 올림픽의 ‘경험(Experience)’, 기념품과 지역 특산품에 녹아 있는 개최지의 ‘지역성(Regionality)’, 티켓, 이벤트, 픽토그램 등을 살펴보는 ‘소통(Communication)’, 다양한 안전장치를 살펴보는 ‘안전(Safety)’, 올림픽 이후를 전망해 보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올림픽을 자료로 재구성하는 ‘기록(Record)’이라는 8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지난 동계 올림픽과 개최지의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큐레이션 전시이다.

■ B 강원 9경

공공디자인을 설명하려면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문화적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고민해야 한다.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바탕 위에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는 예술의 한 분야이다. 그 용어 자체가 목적인 개념이어서 특별히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디자인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두루 관련되어 있다.

강원 9경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용어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공공성, 다시 말해 소통을 전제로 하는 공공성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이는 디자인의 본령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태백산맥과 동해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가 함께 어우러진 강원도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 올림픽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관점과 그 지역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을 보여 준다.

〈평창의 봄〉에 참여한 9개의 개성 넘치는 크리에이티브 팀들과 함께 디자인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본다.

■ C 설거지 차 3

오늘날의 디자인은 사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고자 하며, 어떤 실천적 모델을 제시할 것인지 고민한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소비와 생산 사이의 어떤 행위를 향한 욕구를 갖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생산하는 행위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을 만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 상상해 본다.

설거지 차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도 하고, 축제나 행사장의 시설물 속에서 늘 당연하게 여기던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행동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또한 이런 친환경적 실천과 참여, 소통을 통해 경험의 가치를 창출하며 임시 공간의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 준다.

서로 만나서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의 공간인 설거지 차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생산됨을 보여 준다. 평창은 물론 다른 지역 어디서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길 기대해 본다.

■ D 읽고 먹고 연결하다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지원하는 공공디자인의 기준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더 나아가, 개최지 지역민의 삶에 기반한 지역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매개체이자 새로운 관계 구조를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작용하는 일본 다베루 통신과 강원 소식(疏食)을 소개한다.

일본 다베루 통신은 지역 생산자들의 삶의 태도와 철학을 전달해 기존 생산물 유통에서는 보이지 않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채로운 관점과 자발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생성하면서 가치 공유의 공동체가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강원 소식(疏食) 만들기는 어부 김수진 씨와 여덟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의 바다, 그의 땅인 강원도를 ‘강원 소식(疏食) 0호’에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테이션 영상이다. 강원도의 삶을 읽고, 먹고, 연결하고자 하는 강원 소식은 먹는 시도라는 행위에서 발견된 실천적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그 방식이 품은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